

2023년 정간사 회의록 (10월)-국장연석회의

일 시	2023년 10월 22일(일)	장 소	비대면(줌)
참석자	김경욱, 김가람, 김민호, 김상태, 김진실, 방호봉, 홍동신, 안인호 이기광, 이우영, 최남훈, 원영집, 여선, 전경재, 조숙희, 박세철, 박세철 <국장 : 임호빈, 김재현, 김은경, 김문철, 황운기>		
결정사항	<p>1. 우간다 홍세기 선교사님 위치와 역할 건 (제안자: 김진실)</p> <p>가. 교사선교회 파송 선교사로서의 위치는 65세까지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65세가 되시는 올해까지만 이를 적용하고자 함. 필요에 의해 70세까지 연장되는 규정도 있으나 교사선교회 선교사의 선구자 위치에 있기에 더욱 후배들에게 이 규정의 존재와 준수의 선례가 되어 분이 되기에 내년부터는 파송선교사 역할을 내려놓기를 희망하심.</p> <p>나. 우간다에 그대로 남아 선교사 역할을 그대로 하고자 하심. 교사선교회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단기 선교팀 등을 받고자 하심.</p> <p><<결정할 사항>></p> <p>가. 홍세기 선교사님의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?</p> <p><<결정>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세기 선교사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파송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으시고 이후 개인적으로 우간다에서 계속 되시는 선교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협력하기로 함. <p>2. 교사선교회 리더십에 대해 국장님들과의 의견 나눔 (제안자: 김상태)</p> <p>가. 교사선교회의 내외부적 상황을 전반적을 바라보고 현상황과 내외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?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.</p> <p>나.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와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임. 특별히 선교회의 결정들이 책임간사님과 지체들까지 잘 공유되고 소통되길 원함.</p> <p>다. 법인설립, 해외선교, 연구모임 설립 등 확산되어지는 변화 속에서 방향과 입장을 정립해야 함.</p> <p><<의견>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자주 소통하고 오해와 생각의 간극을 좁혀야 함. - 양육과 교육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. 더 이상 구분하거나 논의의 대상이 아닌 삶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. - 탐리더십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보다는 간사리트릿 시간에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또한 간사리트릿에서 그동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간사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. - 우리 선교회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. 그것이 여러 종류의 선교단체가 있는 이유다. 비전은 탐리더십에서 정해져 내려와야 한다. 전략은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		

있으나 비전은 그럴 수 없다.

- 권역모임에서 담당 정간사가 필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

3. 2024교육국의 변화 방안에 관한 논의 (제안자: 김기웅)

가. 올해 6월부터 정간사 회의에서 논의되어 왔던 '별무리 네트워크(가칭)'를 추진, 여러 단체를 연결하고 연수 등을 지원함.

나. 설립준비위원회-> 내부형 네트워크 -> 개방형 네트워크 : 사회적 영향력 확대

다. 무장과정 수료자가 파송자가 되며 은사와 전문성으로 필요한 영역 개척 및 협력 (선교회 양육과정의 개편이 필요)

라. 간사리트릿에서 이 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함.

<<의견>>

- '좋은교사'와의 협력 부분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보이지만, 매우 긍정적으로 보임. 특별히 현재의 4대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.
- 무장과정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양육과정 특히 무장과정의 통과 조건을 다시 다듬고 명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이미 교사국에서 이에 대한 작업을 완료함.
- 간사리트릿에 오기 전에 모두 생각해올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 보고서를 미리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.
- 선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함께 한걸음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.
-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상 선교회 전반에 걸쳐 개편이 필요한 영역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명확한 방향성을 규정하고 장기간의 논의와 전개가 필요하다.
- 간사리트릿에서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으니 토의보다는 포럼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.

4. 하반기 간사리트릿 관련 건 (제안자: 박세철)

가. 하반기 간사리트릿을 1박 2일로 운영하기로 함. 전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.

나. 수고하신 간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운영하고자 함.

<<결정>>

1.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'별무리 네트워크'를 포럼형식으로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되, 앞서 대표간사님께서 비전2020이나 무장과정 이후의 삶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함.
2. 주제 발표(컨퍼런스 진행상황 보고, 예산 및 결산, 홈페이지 자료 이관 안내, 50주년 수련회 안내, 해외 선교국의 방향, 금산 다목적 건물 건축비 지원 논의, 초임교사 정착 및 분포)

5. 겨울수련회 관련 건 (제안자: 박세철)

가. 김형국 목사님 주 강사님으로 모시기로 함.

나.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 함.

<<결정>>

1. 개회예배 설교자는 김기웅 간사님으로 결정됨.

2. 전체 특강 첫날은 교사선교회 역사와 미래는 역대 대표 간사님과(별무리학교&템북) 토
크쇼(진행자 김상철 섭외 예정), 둘째날은 국별 방향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함.

3. 50주년 기념행사는 성찬식, 스테이지 등으로 구성함.